

인사말

오늘은 참으로 뜻 깊고 유익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족문화의 산실인 전통사찰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서울시 전통사찰 주간’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는 청명한 절기와 더불어, 전통사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마음의 풍성함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문화적 자산으로 깊이 인식하시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통사찰의 가치를 공감하고 화합의 한마당을 위해 기꺼이 동참하신 내빈 여러분과 사부대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1700여 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찰이 건립되었고, 그 법등이 이어져 오늘날 전통사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서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일상생활에서부터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고유한 민족문화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이는 불교가 다양한 문화와 충돌하기보다는 서로 보완하고, 또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해가면 조화롭게 포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정신문화와 여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전통사찰이 자연스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된 선대의 수승한 문화를 계승하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서울시 전통사찰 주간은 서울 곳곳에 살아있는 전통사찰의 가치를 시민과 국민들이 함께 향유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유구한 역사에서 불교문화가 민족과 함께 했듯이 전통사찰은 현시대를 대표하는 시민의 자랑이자 이곳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우리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전통사찰의 가치를 함께하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시민과 사회에 깊은 인연으로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참석해주신 사부대중과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2014)년 10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